

‘코로나 블루’ 청소년을 구하라

지난해 ‘극단적 선택’ 전국 초중고생 10년 내 최저

비대면 수업으로 우울·고립감 증가...심리상담 확대 등 시급
교육부, 전문가 학교 방문 늘리고 지역 정신건강 거점센터도

지난해 전국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의 수가 10년 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상담 확대와 초기 치료비 지원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대면·비대면 수업 병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상황에서 심리적 위기 학생의 관리가 부실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등학생은 총 147명으로 집계됐다. 140명이던 2019년보다 7명 증가했다. 광주·전남에서는 1명이 늘어 증가 징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광주시 광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가정불화와 원인불명의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해 주위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 10만 명당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 수’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데 지난해 학생 10만 명당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은 2.75명으로 2.71명을 기록한 2009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19년에는 10만 명당 2.57명을 기록했다.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 10만 명당 극단적 선택 학생 수는 2015년 1.53명까지 줄었지만 201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8년 이후 2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이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우울·고립감 등이 늘어나면서 극단적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가 더 걱정스럽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보다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145명의 전문가를 투입한다. 또 상담을 늘리기 위해 정신건강 거점센터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할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청별 전문가 양성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확대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갈수록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 원인이 복잡·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병원과 경찰 등 협력기관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위기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확대와 초기 치료비의 실질적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방과 후 마을돌봄 프로그램

광주시교육청, 15개 기관 확정

광주시교육청은 23일 민간위탁 공모 심사를 거쳐 2021년 방과 후 마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15개 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기관은 꿈꾸는부엉이마을학교, 빛고을남구마을허브사이트주민협의회, 사단법인 플레이드립, 사회복지장작소 터, 동산대중합사회복지관, 스토리텔링 매씨즈, 십시일반나눔마을학교, 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그림이있는작은도서관, 온가족그림책작은도서관, 사단법인 한국에솔진협회, 교육공동체어울림, 숲속작은도서관, 광주시봉선초소년문화의집, 마을한바퀴 등 15개 기관이다.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3학년 이상이 주 대상이다.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기관별 10~25명 안팎의 초등학생들이 돌봄을 받는다. 기관 당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슬기로운 금융생활’ 특강

전남대-광주은행 연간 6차례

전남대학교가 광주은행과 손잡고 대학생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에 나섰다.

전남대는 학생들의 올바른 금융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금융교육을 1~2학기에 각 3회씩 모두 6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19일 첫 강의를 가졌다.

이날 강의는 ‘슬기로운 카드생활’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30분동안 비대면 줌(ZOOM)형식으로 진행됐는데,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교육 실무를 맡은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주식과 펀드 등 재테크, 대출사용과 신용관리,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대응 등 대학생들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제들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김치공장 위생상태 점검

23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가공팀이 두암동의 한 김치제조판매업소에서 위생 및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노후 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탈바꿈

도교육청, 175곳 5년간 국비 4026억 등 1조3000억 투입

전남지역의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시설 175개교 242개 동이 오는 2025년까지 최첨단 친환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탈바꿈한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23일 비대면 정책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남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40년이 경과한 지역 내 학교시설 175개교 242동을 디

지탈·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으로 개축·리모델링한다. 5년 간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조3000억 원이다. 이 중 30%(4026억 원)는 국비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5개년 전체 사업 물량의 26.7%인 47개교 82개 동에 대해 3600억 원을 투입, 사업을 진행한다. 이 중 36동은 개축, 46동은 리모델링을 통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변모시킨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은 지 40년 이상 된 학교다.

전남교육 정책 방향에 맞게 선정했으며, 적정규모 육성 사업이 완료된 곡성 지역을 제외한 21개 시·군에 적절하게 배정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우리 사회는 지금 코로나19가 서둘러 불러온 미래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창의·융합형인재 양성을 요구한다”며 “이 같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보호 받는다

질병 등 사유 있어야 제외 가능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질병과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남용으로 다수의 특수고용직들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특수고용직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질병·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현행 법규상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종사자는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인데 이들은 사유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압박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는 등 제도의 오·남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비대면 광주노래자랑 열려

광주 동구행복재단

광주시 동구가 코로나19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을 겪는 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한 ‘비대면 광주노래자랑’을 개최했다.

23일 동구에 따르면 이날 동구행복재단이 ‘제1회 비대면 광주노래자랑’을 전일빌딩245 4층 전일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하고, 유튜브 ‘245생활문화방송’으로 송출했다.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 피로감 해소와 고단한 삶 속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기 위해 당초 대면 노래자랑으로 열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비대면 진행을 결정했다.

이번 비대면 광주노래자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일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참가신청을 받아 1차 심사를 마친 총 9팀이 참가했다.

참가팀들은 ‘광주’ 관련 노래를 부르고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실시간 방송투표로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인기상 1팀은 소정의 상품권을 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광주 노래가 갖는 힘과 울림을 통해 가슴 따뜻해지는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 살 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 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